

우승희 영암군수 '영암 1호 나눔리더' 가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릴레이 캠페인 참여

우승희 영암군수가 지난 7일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2023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의 영암 1호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사회에 희망의 등불이 켜질 수 있다"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고, 더 많은 분들이 나눔문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은 지역 리더의 솔선수범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와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사업.

이날 우승희 군수는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년 안에 100만원의 기부를 약속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작지만 선한 영향력이 모여 이웃과 지역

신안군-한국피아노, 조율사협회 업무협약

국제 피아노 제조기사·조율사 협회 국제총회 유치 적극 협력

신안군은 지난 7일 자은도 신안자생식물유지사업에서 (사)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회장 김현웅)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 유치한 바 있다. 한편 IAPBT는 전 세계 24개국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2년마다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순회 개최 중이다. 올해는 제23차 국제회의가 7월경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신안군은 2025년 제24차 국제회의가

이날 협약식은 1979년 미국과 일본의 피아노 기술자 협회가 설립한 국제 피아노 제조기사 및 조율사 협회(IAPBT) 총회를 신안군에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는 1983년 설립되어 그 이듬해 IAPBT 회원국에 가입하였고 전국 19개 지부 6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이다. 또한, 우리나라 서울(1991년)과 대구(2007년)에서 국제회의를 총 2

자은도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개최시기는 7~8월경으로 국내·외 조율사 450명, 피아노 교습사 100명 등 55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총회는 IAPBT 이사회, 국제총회, 각국 주제발표 및 토론 등 학술토론회, 피아노 및 악기 전시회, 연주회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국제 피아노 제조기사 및 조율사 협회(IAPBT)의 국제회의의 신안군 유치는 자은도 '피아노의 섬'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피아노공연 활성화,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피아노 문화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완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65개로 확대

손질 전복·소방 안전 꾸러미 등 26개 추가 선정

완도군은 8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별초 대행서비스 할인권 등 답례품 26개 품목을 추가로 총 65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 품목과 공급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답례품은 별초 대행서비스 할인권을 비롯해 손질 전복 및 바나나 세트, 제과 세트, 소방 안전 꾸러미, 농장 체험권 등이다.

추가로 선정된 답례품은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7월부터 '고향사랑수출'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완도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은 지난해 선정된 답례품을 포함, 총 65개 품목으로 늘어 37개 공급업체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의 30% 상당의 특산품과 서비스 상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답례품을 개발하고 홍보책자도 제작할 방침이다"며 "선행을 펼치는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답례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진도 서망항, 봄꽃계 위판 한창 '알 딱차고 맛이 일품'

1일 위판량 3~4톤, 위판가격 kg 당 3~4만원

적조 없는 바다서 통발로 잡아 올려 '인기'

전국 꽃게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진도 해역에서 '봄 꽃게 잡이'가 한창이다고 8일 밝혔다.

진도 서망항은 조도면 외병·내병

도, 관매도 일원에서 잘 잡아 올린 봄꽃게 위판으로 북적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일 20~3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출어해 최당 250~300kg의



꽃게를 잡아 올리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진도군수협을 통해 위판된 꽃게는 이날 현재까지 500여 t, 위판고는 140여 억원을 기록했다. 1일 위판량은 3~4에 달한다.

조도면 해역은 냉수대가 형성돼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하고 모래층이 알맞게 형성되면서 꽃게 서식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됐다.

특히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해역인 진도군은 지난 2004년부터 바다 모래 채취 금지와 함께 매년 1억원 이상 꽃게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왔다. 또한 통발로 잡아 올려 다른 지역 꽃게보다 상품성이 좋아 구입을 위한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8일 현재 진도군수협 경매 위판가격은 kg당 3만원~4만원이다. /진도=백재영 기자

'땅끝해남 수국축제' 개최

포레스트수목원서 한달간

해남군 현산면에 위치한 4est(포레스트)수목원에서 오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2023 땅끝해남 수국축제'가 열린다.

4est수목원은 250여종, 9,000여 그루가 식재된 2,600여㎡(8,000평) 규모의 수국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는 국내 최대 수국정원으로, 여름철 대표 힐링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해남군 현산면 봉동마을에 위치한 4est수목원은 식물학을 전공한 김건영씨 부부가 7년여에 걸쳐 조성한 곳으로, 6만여평 숲을 따라 14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인문학과 수목원의 만남을 주제로 동서양의 철학적 이상향이 담긴 소정원들이 다채롭게 조성되어 있다.

4est수목원은 숲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forest'에 별(Star), 기암괴석(Stone), 이야기(Story), 배울 거리(Study)라는 4개의 S를 줄일 수 있는 수목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계절 꽃과 식물을 이용한 축제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름에는 숲길을 따라 각양각색 수국이 만개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들리는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소인 4000원이며,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에 방문하면 보다 여유롭게 수국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목포,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추진

안전사고 예방·불법광고물 금지 캠페인 전개

목포시는 오는 9일까지 시 전 지역에서 옥외광고물협회 목포지부(지부장 최수범)와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은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 현장을 돌며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버스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목포역, 평화광장 상가 등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거나 국지성 호우 등에 취약한 지역의 ▲벽면이 용간판 ▲풀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지정계시대 등과 같은 고정광고물 및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과 같은 유동광고물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시 관계자 4명과 옥외광고물협회 목포지부 회원 20여명이 불법 옥외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지난 2일 평화광장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캠페인을 실시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비켜!' 강진, 수산환경 지키기 돌입

수산물 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점검 강화

올여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는 조사 품목을 확대하고 검사량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200개 정도의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해 수산 시장 및 위관장에 배부해 오던 것을 올해는 300개를 추가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주로 일본에서 수입되며 연간 원산지 위반 사례가 빈번한 활참돔, 활가리비, 산 우렁쉥이 등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음식점 및 소매업체 50여 곳을 대상으로

강진군은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굴, 바지락, 전복, 뱀장어 등을 채취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이며, 6~7월에

원산지 표시 단속은 주로 일본에서 수입되며 연간 원산지 위반 사례가 빈번한 활참돔, 활가리비, 산 우렁쉥이 등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음식점 및 소매업체 5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 등을 6~7월 특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등 5종이 추가되어 20종으로 확대되고, 해당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도 적극 병행한다.

군은 지난 2일, 대구 하저항에서 점농어 69,007마리를 방류했고, 감성돔 13만461마리를 6월 중순 방류해 안전한 수산자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진=한홍수 기자

청정완도로 전복 먹으러 갈래?

완도군 전복 홍보대사 영탁